夕刊
朝鮮日報
本報特刊五十二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新聞과 讀者

—衷心한 新聞紙의 必要—

一

贅言할 必要도 업시 新聞紙의 使命은 輿論의 指針이 되는 것이며 大衆의 耳目이 되는 것이다. 正義를 守護하기 위하야는 犧牲을 不顧하고자 와나온 鬪士的 先驅者들의 努力은 그 一面을 잘 代表하는 것이요 困難과 危險을 무릅쓰고 報道의 擴充, 迅速에 財力과 人力을 集注하는 것은 또 다른 一面을 露顯하는 것이다. 이리하야 新聞人의 前途에는 或 牢獄도 잇고 或 砲煙彈雨도 잇스며 或 氷原도 잇고 或 狂濤도 잇스나 記者로서의 奉仕는 生死를 超越한 境界에 잇게 되는 바다. 一片의 늬쓰를 엇기 위하야 狂人的 活動을 辭치 안는 記者의 天稟이 그 個體에 잇서서 一齣의 喜悲劇일지 모르나 이야말로 文明의 躍進을 促하며 世界縮少의 過程을 加速하는 文化的 醱酵劑라고 할이 過言이 아닌가 한다.

二

近代의 新聞紙는 如上의 重大한 使命의 遂行者인 남아에다 市民衆의 友人으로의 機能을 發揮하고 잇는 것이다. 讀者가 심심할 때에 娛樂을 提供하는 것도 新聞紙요 或은 家庭生活에 或은 家計에, 或은 敎育問題에 其他 萬가지에 便宜와 利益을 대신 圖得하야 주는 것이 新聞紙의 奉仕的 事業으로 發達되어 잇다. 어떤 批評家의 말과 가티 新聞紙가 大衆의 『先生』 或은 『保護者』라고 까지 말하기가 誇張的이라 하면 적어도 大衆의 『友人』이라고 稱하는 것은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리하야 新聞紙는 家庭에 對하야, 文化人에 對하야 一日이라도 떠날 수 업는 必需品化하엿다. 新聞은 彼 所謂 『輿論의 指導』者라든가 『社會의 木鐸』이라는 官服임은 役割에서 脫化하야 좀더 親切한 『말동무』며 『심부름꾼』으로의 役割까지를 自進하야 取하게 되는 것이다.

三

더욱이 朝鮮에 잇서서 우리는 新聞紙의 使命이 親友로서의 一面에 一層 主力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밋는다. 卽 朝鮮에 잇서서 大衆의 文化的 要求에 對한 酬應 乃至 啓發의 機關이 他에 잇서서 貧弱하고 오직 新聞紙가 萬가지 機關을 代辯하게 된 것이 숨길 수 업는 事實이기 때문이다. 本報는 恒常 이러한 使命을 自覺하므로 일부터 讀者에 對한 奉仕를 게을리 아니하려고 勞心하야 왓거니와 特히 이번에 『讀者實費診療券』을 發行하는 것이라든지 紙上에 『讀者利用欄』을 公開하는 것이라든지 다 이러한 用意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奉仕에 依하야 讀者中에 다만 一人이 그 難關을 解決할 수가 잇섯다든지 그 權益을 保護할 수 잇섯다 하면 우리의 滿足은 거기서 더함이 업슬 것이다. 다시 一步를 나아가 一層 廣範圍로 讀者의 便益을 講究할 『相談部』의 施設은 이미 豫告한 바와 가티 目下 準備中에 잇거니와 文化的 交換機能이 薄弱한 朝鮮에 잇서서 新聞紙로서의 一角의 使命을 斷行코저 하는 우리의 努力을 大衆은 支持하고 贊應할 줄도 確信한다.

四

例를 들것도 업시 新聞製作에 在한 大衆的 參加는 先進 諸社會에 잇서서 漸漸 進步로, 또는 興味잇는 更…잇다. 價値잇는 … 討論의 … 本報가 歡迎하는 바이니 어써든지 過去에 잇서서도 本報의 紙面은 『讀者』에 對하야 開放되엇거니와 將來에 잇서서도 더욱 大衆의 利用率의 增加를 希望하는 바다. 이는 오로지 本報가 朝鮮民衆의 公有物이 되려하는 誠心的 努力의 一端에 不過하다.

『非常時局打開에는 强力內閣이 必要』

軍部側絶叫의 政治思想具體化

政變說漸次擡頭

【電通東京電話】 政府는 陸軍大演習終了後 來十日頃에 開催되는 豫算閣議를 압두고 對內國策樹立에 關한 會議는 種種의 理由에 依하야 아즉 開催함에 至치 못하고 一方大演習中에 이러난 政民兩黨提携運動도 그 後 表面的으로는 解消함에 至하야 政局은 暫間傍觀狀態를 示하고 잇스나 그러나 裡面에 이서서는 政治季節에 入하엿스니 만치 各種觀測이 傳하야 今後의 政局의 動向에 關하야 最近 엇던 方面으로 政變說이 漸次擡頭하며 잇는 事實은 注目에 値한다. 卽 此政變說이라는 것은 大演習直後 政友會貴族院의 一部 及 軍部方面에서 表面化한 것으로 그 理由로 하는 것은

一, 現下의 日本이 直面한 國際的 非常에 對處하야 特히 一九三五, 六年의 難局을 앞두고 遺憾업시 各般의 施策을 斷行하기에는 齋藤內閣은 이미 微力함을 十分表示하엿다

一, 過般 五相會議에서 外交國防에 關한 根本方針은 大體의 決定을 보왓스나 荒木陸相이 屢屢히 强硬한 主張을 하여온 對內國策에 關하야는 現內閣은 何等 誠意를 示함 업시 根本策에 對한 態度는 依然하다

一, 그리고 現下의 非常時局認識에 關하야는 各閣僚의 一致를 缺하고 海外國策의 實行도 遲延되며 잇다 此는 閣內不統一 及 齋藤首相의 無爲無策에 依함이다

一, 如斯한 諸事情으로 非常時局을 打開함에는 적어도 日本固有의 精神을 把持한 强力的 內閣의 實現이 絶對로 必要하다

하야 要컨대 此는 時局의 認識에 出發하야 最近 略 三年에 亘한 軍部方面에 絶叫하여온 政治思想이 漸次具體化하여 잇는 것을 表示하는 것으로 最近陸相의 强硬한 言動도 그의 表現으로 본다 그러나 政局의 今後의 動向 如何를 보기 前에는 何等 豫斷을 許치 안으나 前途는 當分 複雜한 空氣에 싸흘 것이다

政變은 中旬頃?

『對內國策建議에 아직 回答업서 十五, 六日가량 더 靜觀하여 볼가』

意味深長한 陸相談

【聯合東京電話】 政局不安說과 同時에 策士의 暗躍이 繼續하야 十一月中旬頃에는 齋藤內閣의 危機가 招來된다는 流言이 流言을 낫코 잇는 此際 荒木陸相이 二日 『對內國策에 對하야 여러 가지 建議하야 왓스나 只今에 至하야도 書記長官이 아모 말 업다 十五, 六日을 靜觀할가』하는 意味深長한 談話를 發表하얏다 卽 十五, 六日 靜觀하면 政變說이 傳하는 바와 가치 十一月中旬이 되는 셈이다 軍部가 齋藤內閣을 無視한다는 此際 注目의 이 齋藤內閣은 밋기 不足하다는 意味가 包含되는 談話는 政界各方面의 神經을 異常히 刺戟하고 잇다

豫算閣議는 十日頃부터 開催되는 듯한데 豫算과 重大關係를 가진 對內國策의 決定을 어떠케 進行해 갈가 全然 아지 못하엿다 自己의 意見의 國內策提言에 對하야 아즉까지 書記長官等으로부터 아모 말이 업다 너무 干涉치 말고 靜觀하는 것이 조켓지도 모른다

現內閣의 無爲에 軍部內大不滿

對內國策提示中止?

【聯合東京電話】 對內國策에 對한 荒木陸相의 態度는 各方面으로부터 注視되야 次回閣議에 엇더한 重大意見을 發表치 안나 지나 아니할가 하야 注目되는데 陸相은 最近 對內國策에 對한 各閣僚의 意向은 大體明瞭하게 되야 自己의 抱懷한 것을 察知하얏슴으로 國策을 交換示하야 어대까지든지 貫徹을 要求하면 重大決意를 要하며 卽時實現을 보기는 到底히 至難한 情勢이오 齋藤首相도 陸相의 提言에 對하야는 極히 曖昧한 態度를 가지고 잇는 狀態이어서 陸相의 側近에 잇는 陸軍首腦部도 最近에 와서는 陸軍에 對內策의 成案이 잇기는 하나 陸相으로부터 此를 提示하는 일은 업스리라는 意向을 漏洩하는 點으로 보아 陸相은 當分靜觀의 態度를 持할 것으로 觀測하게 되얏다 現內閣의 無爲에 對하야는 軍部內에 相當히 不滿한 點이 노파가는대 對內國策을 中心으로 하고 今後의 陸相의 態度는 充分히 注目할만 하다 그리고 對內國策問題에 對하야 陸相은 如左히 말하얏다

大演習에서 歸하야서도 아즉 아모것도 업는 모양이나 自己는 今後十五, 六日間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랴 한다 云云

米國大統領 太平洋上巡行

議會終了後에 出發

【華盛頓二日發】 루-즈벨트 大統領은 議會終了하는대로 巡洋艦으로 파나마 經由 하와이 方面 大平洋上巡視旅行에 떠날 旨를 二日에 發表하엿다 右는 就任以來 希望하던 바로 米領諸島視察의 一部가 되는 것이다

朝香宮妃殿下薨去

三日午前二時 宮內省發表

【通電東京發至急報】 宮內省 三日午前二時二十分發表 朝香宮妃允子內親王殿下께서는 三日午前一時十五分 薨去하시엇다

明治節御宴御中止

【電通東京發至急報】 三日午前三時三十分 宮內省式部職發表 三日의 明治節御宴會는 御中止하시기로 되얏다 또 參賀도 中止하게 되얏다

北鐵全從業員의 俸給支拂을 停止

蘇從業員逮捕의 報復手段으로

二萬의 從業員大憤慨

【電通哈爾賓二日發】 北鐵滿洲國側에서는 逮捕된 蘇聯邦從業員의 俸給支拂停止를 主張하고 蘇聯側은 이에 反抗하야 未解決 그대로 잇는데 루되 管理局長은 이 報復手段으로 右問題 解決되기까지 當分 從業員全部의 俸給支拂을 停止하고 七日 命令을 發하야 十月分부터 從業員 二萬名의 支拂을 停止하얏다

【電通哈爾賓二日發】 루되 北鐵管理局長의 從業員二十萬人의 俸給支拂停止를 滿洲國側從業員은 勿論 蘇聯側從業員도 루되 局長의 暴擧에 憤慨하야 形勢險惡하다

◇伊佛海軍協定成立

힛트러ㅡ틔의 어케까지 나를 사랑하야주든 커사나희가 오날와서 이런 失禮를 하도록 마음이 變한 것인가 아ㅡ아』

第一次回訓到着

印度案에 稍接近

日印會商에 一曙光

【電通델리二日發】 델리 日本代表部에서는 印棉百二十五萬俵에 對하야 綿布基準三億五千萬平方碼最高四億平方碼를 最終讓步로 하는 印度案에 對하야 日本內地가 如何한 意向으로 臨할가함에 對하야 深甚한 注意를 拂하고 大阪에 在한 官民協議會의 成果는 若干 憂慮하고 잇는 바 二日 午後에 至하야 外務本省에서 日本政府代表에게 第一次的 回訓이 到着하얏는데 그 內容에 依하면 外務本省의 意見은 大體代表部가 가진 意見과 一致하는 것으로 印度案에 對하야 非常히 接近하고 잇는 것이 明白하게 되엿다 依하야 代表部에서는 이 方針이면 或은 統一될 可能性을 認할 수 잇는 見解를 生함에 至하고 漸次樂觀氣分이 나타나게 되엿는데 그러고 本省의 訓令에서는

一, 爲替動搖에 對한 具體的 措置

一, 一年을 四期制에 對하야 數量協定을 適用하려는 印度側의 提案

一, 綿布를 四種目에 分類하야 適用標準으로 하려는 印度側의 提案

等의 點에 關하야 아즉 充分明確한 指示가 업서 차라리 政府案이라고 할 것으로 當業者의 諒解를 完全히 어덧다고 할 수 업는 點도 잇슴으로 第二次 第三次의 訓令을 기다리고 잇다 그러나 右第一次의 回訓到着에 依하야 日印交涉의 停頓에 적어도 一道의 光明을 認하게 된 셈으로 或은 十日의 日印通商條約期限再到來에 압서 重大한 展開를 보게 될지도 모르겟다는 觀測까지 잇게 되엿다

政府最後案作成

印側과 折衝豫定

【電通東京電話】 日印會商은 綿布輸出量 및 棉花買付量에 關하야 三十日의 第九次 民府會商으로 日印兩國의 多大한 懸隔을 남긴 대로 休會 그 繼續하고 잇는데 이에 對하야 外務商工兩省當局으로서는 印度自身의 利益과 日印兩國의 發展을 爲하야 今後에 在한 大局的 見地에 立하야 本交涉을 圓滿히 成立식히고저 努力하고 잇는데 政府로서는 大阪에 在한 官民協議會에서 得한 民間側 意向을 斟酌하야 大體 左와 如한 政府最後案을 作成하고 一兩日中에 上京하는 民間代表者와 協議한 後 日本側의 最後的 對策을 作成한 後 澤田代表로 하여금 印度代表『보아』氏 官과의 間에 最後的 折衝을 行케 되엿다

一, 綿布輸出量 及 棉花買付量에 關한 協定에 對하야는 總括的 制限方式을 하고 印度側이 主張하는 品種別, 季別數量制限과 如한 細目的 制限方式에 反對할 것

一, 棉花數量은 棉花百萬俵에 對한 四億碼 도할 것

一, 日本으로부터 綿布輸出에 對한 最高限度設定은 承認치 안흘 것 但, 印度側이 어대까지 이를 要求하는 時는 五億碼的으로 雜貨關稅綿布關稅等에 關하야 다시 讓步를 示함에 이어서는 四億五千碼까지 引下할 것

一, 솔라이히스켈에 適用할 一萬俵對二百萬碼의 比例數量을 引上할 것

交通審議會

【… 電話】 交通審議會는 二日午後二時 首相官邸에서 開會되야 閣員以下關係各省次官出席 … 議結果 總會開會의 資料가 整備되엇슴으로 來週第一回交通審議會總會를 開하고 日滿間의 交通整理에 關한 方策의 審議에 着手하기로 되엿다

休日氣配

◇株式=日印會商樂觀으로 紡績株及 取引所株의 續騰을 期待하야 日前 强硬하나 氣配堅固

大新 一三六、五〇 鐘新 一四〇、八〇
東新 一〇六、八〇 日產 三一、五〇

◇期米=產地實物이 만흐나 農況良好로 前途高含, 硬味가 잇스나 一般材料를 기다리는 模樣이다 氣配堅固(大阪天候晴天)

◇綿糸=氣配堅固

米日爲替續騰

【聯合紐育二日發】 本日米日爲替는 更히 二十五仙을 騰進하야 二十九弗二十五仙으로 되엿다

二日의 金買上價 三十二弗三十六仙

【電通紐育二日發】 復興金融會社는 本日의 產金買上值를 前日보다 十二仙 引上하야 三十二弗三十六仙으로 發表하엿다

明年度부터 實行할 稅制改正案

改廢되는 地方稅의 各種 【中】

咸尙勳

相續稅

다음 相續稅에 對하야 말하면 免稅點이 幾許인지 알 수업스나 日本과 가티 家督相續엔 五千圓以下, 遺產相續엔 一千圓以下로 할지라도 細民에게 課稅치 안는다는 社會政策的 意味를 이커버린다. 一千圓 짜리의 遺產에도 相續稅를 課한다 하면 都市면 六, 七間짜리 草家집에 사는 細民에게도 이 稅를 課하는 셈이고 農村이면 二, 三十斗落 自農하는 小農에게까지 이 稅를 課해야 한다. 멧푼도 안되는 相續에 稅金이 웬일인고. 그리고 稅率을 볼지라도 家督相續엔 千分의 五 乃至 六十이오, 遺產相續은 千分의 百 乃至 二百十이다. 遺產相續의 免稅點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니 最下 千分의 百이라 한 課稅率이 올코 글코 批判키 難하나 千圓의 財에 이것을 課한다면 語不成說 말할 것이다. 日本의 相續稅課稅率을 보면 家督相續엔 最下 千分의 五로부터 最高 千分의 百六十이오, 財產相續엔 最下 千分의 十으로부터 最高 千分의 二百十으로 되어잇다. 朝鮮의 遺產相續課稅率의 最下가 千分의 百이란 것은 어떠한 數字上 살못이 아닐가. 萬一 總督府가 數十萬圓以上의 遺產에만 相續稅를 課한다하야 最下 千分의 百이라 할진대 總督府의 稅制가 中小產階級을 絶對擁護하는 셈이 되겟지만 이것은 모든 相續에 잇어서의 家督相續의 境遇와 判然히 다르니 밋기 어렵다.

但 筆者의 希望은 免稅點을 노피하고, 累進率은 高度로 하야 中小產階級에게 負擔이 만치 안케 해야할 것이다.

地方稅의 改廢

以上은 國稅에 關한 改正에 關한 말이어니와, 이 國稅改正과 關聯하야 注目되는 것은 地方稅를 改廢하는 것이다. 所得稅의 新設에 依하야 道稅에 所得稅附加稅가 新設될 것은 必然의 勢어니와 所得稅가 이미 中小產階級에게 負擔이 過重한지라 그 附加稅가 또한 負擔過重일 것은 勿論이다. 그리고 所得稅及 所得附加稅의 新設에 따라 道稅의 重要한 戶稅를 全廢한다는 바 이것은 正當한 方針이라 밋는다. 從來 戶稅는 人頭稅와 各道마다 每戶當 二圓의 平均으로 看做하고, 下는 남의 집 머슴사리와 행낭군으로부터 上은 億萬長者에게까지 富에 따라 累進率로 賦課하얏다. 所得稅가 그 사람의 收入을 標準해 가지고 課하는 以上 重複해 課함은 不可하며, 이로써 年收六百圓以下의 收入者가 全部 戶稅, 所得稅를 물지 안케 되엇으니 이런 意味로서는 多少 社會政策的 意味가 업지 안다.

다음은 學校費及 學校組合費의 減下다. 學校費의 財源은 賦課金(戶稅附加金、家屋稅附加金、戶別割)、使用料及 手數料、授業料、補助金、寄附金으로 되어잇고 學校組合費는 戶別割、授業料、墓地、火葬場使用料、補助金、寄附金等으로 되어잇는바 所得稅를 地方에 還元하야 戶稅附加金及 戶別割을 減下한다는 것이다. 當局은 學校費及 學校組合費를 各各 約半額식 減下한다니 戶稅系統의 附加金은 全廢할 意響이지 모르나 所得稅及 그 附加稅를 支出하는 以上 戶稅系統은 全廢함이 至當하고 日本人은 이미 家屋稅系統의 學校組合費는 내지 안흐니 朝鮮人도 그래야 한다.

學校費及 學校組合費를 半減하면, 學校費와 學校組合費와의 區別이 漸次 解消되어 간다는 것을 말함이니 萬一 이 區別이 업서진다면 當然히 朝鮮人과 日本人兒童의 敎育上의 差別도 撤廢해야 한다. 即 只今까지는 日本人이 學校組合費를 만이 負擔하고 朝鮮人이 學校費를 적게 負擔하기 때문에 日本人에게는 義務敎育을 實施하나 朝鮮人에게는 그러치 못하얏다하니 學校費와 學校組合費의 區別이 적어지면 當然 그 差別을 撤廢해야 한다. 나는 차라리 이 學校費及 學校組合費를 撤廢하고 朝鮮人及 日本人이 다 義務敎育을 받는 機會를 엇기를 바란다.

今日本紙四面

八面鋒

◇ 겨울사리를 爲하야, 先生과 學生이 솜방울을 줍는다!

◇ 面書記五名採用에 二百餘名이 몰려든다!

◇ 所得은 三割減인데, 賭租는 멋割이 올은다!

◇ 한面民의 負債를 調査한 今, 每戶에 七十圓式이 된다!

◇ 繼歲次 癸酉年의 겨울은, 이렁저렁 깁허간다!

新生 十一月號 一册十錢 一年一圓

讀者의 時節은 왓습니다……尹仁駒
력셀氏의 다만罪人을위하야……任英彬
필氏의 罪人의罪人슈역일지……任英彬
플링겔氏의 나는 書齋에……柳洲
테어쎈氏의 宗敎의批判……鄭景玉
朝鮮詩史(瑞宗篇)……金璟模
뉴솜氏의 新道德論……申基淑
스트릴러氏의 宗敎와科學의紛爭……柳瀅基
겡만氏의 說敎者와聖經……延州人
스쿨氏의 남잡이 제잡이(小說)……任英彬
뿌라운氏의 靑年과交友……天然人
올든氏의 한일종이울때(聖劇)……吳天錫

柳瀅基 奇怡富 共譯 基督敎史 四六版四一六頁・一圓二十錢
梁柱三 著 農民의 樂園丁抹 四六版四〇頁・十二錢
柳瀅基 編 現代科學과 基督敎 四六版一一九頁・洋裝五十五錢
柳瀅基 譯述 基督과 實際問題 四六版二二七頁・洋裝五十錢
金東鳴 作 詩集 나의 거문고 四六版一六九頁・六十錢
柳瀅基 譯述 基督敎의 眞髓 四六版一九一頁・紙衣五十錢 布衣七十錢
金俊玉 著 主日學校敎授原則 四六版一一八頁・三十五錢
柳瀅基 譯述 大哲 소크라테쓰 四六版五〇頁・二十五錢
金鍾萬 著 兒童期의 心理 四六版一〇四頁・三十五錢
金俊玉 著 主日學校禮拜指導方法 四六版一一六頁・三十五錢
柳瀅基 譯述 現代敎會와 宗敎敎育 四六版一五一頁・三十五錢
柳瀅基 譯述 一千九百年後의 예수 四六版二〇六頁・普及版十四錢
오천석 공역 류형기 예수의 생애와 교훈 四六版二一二頁・普及版十四錢
柳瀅基 譯述 宗敎의 本性 四六版一三九頁・布衣五十五錢 紙衣三十五錢
金信實 著 遊戲指針 菊版半切一四九頁・布衣四十錢 紙衣二十五錢
柳瀅基 譯述 聖經槪論 四六版一〇二頁・三十錢

五圓以上어치를 一時에 注文하시는 분에게는 二割하여 드리고 送料는 언제나 本社에서 擔當합니다。

京城府冷洞三一
月刊雜誌 圖書出版 新生社
振替京城三九八番

現代靑年諸君! 스피ㅡ드時代의 男性的 新職業?
學生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 (學則要二錢)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大漢門驛) 市外各地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本八六七番(振替京二一〇五六)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話光一一五九
恩給 富國昌業社

大見本市
北鮮의 開催日及會場
十一月三日 會寧、博多屋 十一月十三日 清津、清津館
同 五日 龍井、名古屋館 同 十五日 城津、丸中旅館
同 七日 局子街、宅島旅館 同 十七日 北青、大黑屋旅館
同 八日 南陽、萬代館 同 十六日 咸興、松月旅館
同 十日 雄基、博多屋旅館 同 廿三日 元山、喜久屋旅館
同 十二日 羅津、羅津ホテル
出品種目 羅紗製品、男女學生服其他、室內裝飾品一式、敷物各種、靴下其他、帽子各種、毛糸製品、袋物一式、財布類各種、防水布、ゴム雜貨、ワイシャツ、カラー、ネクタイ
◎一萬圓大福引!感謝奉仕!
▲景品 一等 高級運搬車一臺 三等 置時計一個 … 手提蓄音機一臺 二百本 三百本 等外는全部五拾錢相當
主催 名古屋共和商業組合
後援 愛知縣商品陳列所

入學戰線에敗北한 二萬少年將奈何

志願者二一七、五四九人 入學者不過七、九五二人

今年中等校入學成績

조선의 교육계에는 의무교육문제 보통학교 수업료 철폐문제 기타 중등교육 긔관증설문제 등 식자의 주의를 ㅁ으는 현안이 산가치 싸여잇다 현재 조선의 중등교육긔관은 고등보통학교(高普)가 공립(公立)이 십오교 사립이 십일교 녀자고보가 공립이 칠교 사립이 십교이고 공립농업학교(農業學校)가 이십칠교이고 일본인과 공학하는 공립상업학교(商業)가 십오교 사립학교가 사교 상공학교 일교 수산학교(水産學校) 삼교가 잇고 이외에 관립 사범학교 삼교와 공업학교 일교가 잇다 그럼으로 조선인 학생의 중등교육긔관으로는 남녀학교를 합하야 구십칠교인데 이외에 각종 남녀 실업보습학교가 공립 오십칠교 사립이 이십칠교가 잇다

그러면 긔긔와 가튼 중등학교의 생도 입학상태는 엇더냐 하면 금년 사월에 총독부 학무국(學務局)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갓다

	校數	集察定數	入學志願者	入學志願者에對한入學者比率
公立高普	一五	一、七一四	五、一二九	三三、五四%
私立高普	一一	一、三四六	四、六一六	三〇、一五%
公立女高普	七	五五四	一、一〇一	五二、六七%
私立女高普	一〇	一、〇一四	一、五三〇	六六、〇一%
公立農校	二七	一、五四七	七、〇七五	二〇、九九%
公立商校	一五	一、一〇四	四、七一〇	一六、二一%
私立商校	四	五八〇	二、一八三	二五、九六%
公立水産	三	九三	二〇三	四〇、五九%
合計	九〇	七、九五二	二七、五四九	三四、六四%

긔긔의 수사를 보면 총모집 정수 칠천구백 오십이인인데 입학지원자는 이만칠천 오백사십구에 달하니 입학시험에 락제한 생도는 실로 일만구천오백구십칠인이다. 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년 전에는 실업학교 지원자가 비교적 적엇스나 최근에는 긔긔수자가 증명하는 바와 가치 농업학교와 상업학교의 입학시험 경쟁이 심하여진 것은 사회적으로 자못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남녀중등학교가 상당히 보급되여 현재는 입학시험은 대개 업고 모집정원에 지원자가 차지 못하야 중등학교의 폐합까지 성행될 때에 조선 학생에게는 긔긔와 가치 일본긘 문학교 이상의 시험지옥(試驗地獄)을 일우고 잇스니 명춘 입학긔를 압두고 순진한 어린 학생에게는 다시 시험지옥의 대공황 속에서 헤매이게 될 것이다 또 조선 안에 잇는 일본인 중등교육긔관은 실업학교 공학(共學)하는 것 이외에 중학교가 십일교 고등녀학교가 이십사교에 달하며 그 모집인원이 중학교는 공립고보 십오교의 그것에 갓가우며 고등녀학교는 공립녀고보의 그것에 비하야 사배에 달하는 상태라고 한다

學生懸賞雄辯 審判員을決定

前期前人氣는去益盛

시내 보성전문학교 학생회(普成學生會)의 주최와 본사 후원의 제칠회 남녀중등학생현상웅변대회(懸賞雄辯大會)는 예정과 가티 오는 십삼 십사 량일간 장곡천정(長谷川町)공회당(公會堂)에서 개최할 터인바 연사 참가신청긔일은 이일로 절박하엿다 이 대회는 벌서 회수를 거듭한지 이번이 일곱번재로 력사잇는 이대회는 해마다 인긔를 비상히 끌엇다 벌서부터 각학교 학생계는 물론 일반사회의 긔대도 비상한 바 잇스며 벌서 참가학교가 다수에 달하야 성황을 예긔케하는 바 주최측에서는 대회를 압두고 만반준비를 하고 잇는데 심판원은 아래와 가치 각방면의 명사를 망라하엿다

呂運亨 白南雲 金炳魯 玉璿珍 李仁 李容卨 朴熙道 朱耀燮

湖南地方聯絡 試驗飛行豫定

愼飛行士에依賴

여의도비행장에서는 호남(湖南)지방에 항공사상을 보급식히고 항공로를 개척하기 위하야 오는 십삼일부터 이일간 이여경성 장항(長項)김제(金堤)송정리(松汀里)목포(木浦)간 삼백삼십『키로』의 왕복의 시험비행을 하기로 하야 일등비행사 신용욱(愼鏞頊)씨가 명령을 바다 등전(藤田)일등비행사와 김동업(金東業)이 동비행사 동승으로 결행하리라는 바 긔후가 조와지면 십삼 십사, 십오의 사흘동안에 마칠 예정이다 그러고 공무편 취송도 할 터인바 동구간의 발착 예정 시간은 다음과 갓다

往路

京城	發	午前	八、三〇
長項	着	同	九、五〇
長項	發	同	一〇、三〇
木浦	着	同	一一、四五

復路

木浦	發	午後	一、〇〇
長項	着	同	二、一五
長項	發	同	三、〇〇
京城	着	同	四、二〇

大阪東京間 夜間飛行實施

【大阪東京電話】 일일부터 시험으로 연긔되여오든 정긔야간우편비행은 이일오후륙시십칠분 도거(島居) 비행사가 중도『리일형』(中島七一型)에 이십『키로』오백의 우편물을 싯고 대판에 도착하엿다 또 대판으로부터는 풍도(豐島)비행사가 동일오후륙시 동경으로 향하엿는데 이로써 항공계에는 획시긔적(劃時期的)야간비행이 생긴셈이다

【東京羽田電話】 동경대판간 최초의 정긔야간비행인 이일오후륙시 대판비행장에서『실퓌로』의 우편물을 싯고 출발한 일본항공회사(航空會社)의 풍도긔(豐島機)는 동일팔시삼십분 무사히 우전(羽田)비행장에 도착하얏다

多彩! 滿場의珍品 絢爛! 手巧의極致

식당에는아가씨들수제료리

開場된梨花빠사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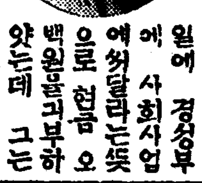
본사학예부 후원인 리화전문(梨花專門)의『빠사』의 날인 삼일 오전 아홉시 정각전부터 구경군이 문아페 밀려드는 성황이여서 오전 열한시반까지 입장자는 벌서 륙백명을 돌파하엿다 장내에 진열된 각종수예품들은 이 학교 녀학생들이 가진 기교를 배풀대로 베풀자 최가 역연하야 그 얌전한 솜씨들은 어느것이고 구경군들의 칭찬을 밧지 안는것이 업섯다 구경군중에는 사방모신사 늙은이 젊은 이『모던걸』까지 모혀서 이『빠사』가 각방면의 흥미를 끌고 잇마나 잇다는 증거를 보혀주엇다 장내에는 특별히 식당의 설비가 잇서서 이 학교의 아가씨들이『피아노』를 치고 영어를 배호는 틈틈에 닥가 너흔 료리의 비방을 남김업시 려노흔 각종음식 요리가로 구경군에게 제공하야 료리의 대가 방신영(方信榮)녀사의 저자들임을 알려주엇다 그러고 기간중에는 매일오후 세시와 일곱시에 별강당에서 음악회까지 여러서 구경군의 흥을 도으리라 한다 (사진은 빠사대회 료리부)

學究은科學에殉死한 X光線發明家『파』博士

영국의 엑스광선(X光線)연구권위자『윌리암, 호위, 파우라ー』박사는 지난 십일오일 영국『첼바라』에서 서거하얏는데 박사는 당년 오십칠세로 청년시에『첼바라』병원의 엑스광선과장을 퇴직한 다음 의연히 연구를 계속하얏는데 박사의 이번 죽엄으로 말하면 지처 엑스광선연구에 몸의 조직이 파괴된 것으로 처음에는 손구락이 ... 그다음에 잘라서 작년에 ... 박사는 ... 이와같이 ... 마침내 ... 생명을 ... 되엿다

繡行妓張錦香

社會事業寄金에 五百圓金을寄附



시내익선동(益善洞)일백륙십번지 기생 장금향(張錦香)(二一)은 일일에 경성부에 사회사업에 쓰라는 뜻으로 현금 오백원을 긔부하얏는데 그는 원래 전라도 태생으로 서울에 와서 기적에 오른 이래 긘생의 미묘에 가무를 겸하야 예명을 떨처오든 중 틈틈이 모아두엇든 돈에서 이번에 오백원을 떼여서 사회보은(社會報恩)의 의미로 그와 가티 긔부한 것이라는바 경성부에서는 그 돈을 방면사업긔본금을 삼엇다 한다

第七回全朝鮮 男女中等學生懸賞雄辯大會

◇時日 十一月十三、十四兩日午後七時

◇場所 長谷川町公會堂에서

◇申請 十一月二日까지◇辯士一校一人

地方辯士 旅費半擔

主催 普成專門學校學生會

後援 朝鮮日報社

專門中學團準決勝戰

崇專 鏡農 信聖 辛勝

1對0으로普專 崇中 普成憤敗

全朝鮮蹴球界의血潮를百파센트로沸騰하게하는 蹴球大會는第三日을마저 점점佳境에드러갓다 이에興味는오로지京城그라운드에集中하야 諸强을물리치고남은中學團의關西關北中央의四雄과처음으로開戰되는專門團과靑年團의諸强들은 最後의時分間을目標로하고 空前의白熱戰은展開되엿다

中學團準決勝戰 鏡農1 崇中0

鏡城農業對崇實中學戰은 三日午前九時三十分부터 審判李仁圭(主) 金和集・朴鍾憙(線)崇中先蹴으로開始하야 延長戰에드러가 1對0으로崇中惜敗하다

◇昨年優勝軍關北의鏡城農業과 關西의雄 崇實中學은처음으로對時케되엿다 이셈이야말로 中等蹴球界에서 처음보는美技를發揮하엿스며 運動精神에잇서서도 模範的셈을演하여一般觀衆으로하여금 賞歎의소리가놉파섯다

【崇中】 李康劉宋李金吉金車金金 / 容弼鉉熙裕聖樂日淳南喜 / 鎬弘璿道運永善玉全守
GRLRCL RRCLL / KFFHH HWIFIW

【鏡農】 李石全柳柳崔梁金李朴張 / 寬壽金始始昌福良洗 / 善松龍民濬吉鉉玉鎬實鶴

崇中 前	後	延	計		鏡農 前	後	延	計
0	0	0	0	得點	0	0	1	1
5	4	1	10	門蹴	4	4	1	9
4	4	0	8	隅蹴	1	1	0	2
5	2	0	7	自由	7	4	1	12
0	0	0	0	懲罰	0	0	0	0

【前半】 開戰直後鏡農FW一齊히前陣하야 崇中陣頭에進出하야 左隅蹴을利하얏스나 失蹴으로無爲되고 九分에 崇中RI金日善의유을GK善防으로 得點치못하고 兩軍激活한셈을演하며 觀衆을陶醉케하드니 十九分에崇中致命的好機를 凡蹴으로노치다 鏡農에에로 崇中陣頭를逆襲하엿스나 勃업시崇中個常攻擊에나가다가 最後十秒를남기고 崇中十八碼附近에서 自由蹴을利하야 好機를마치스나 옷하기前라임업되니兩軍無得點(0對0)

【後半】 兩軍熱戰을거듭할뿐으로崇中十分과十八分에絶好한機會를노치고 鏡農二十分에好機를마치스나 凡蹴으로無爲되여兩軍無得點으로延長戰에드러갓다(0對0)

【延長戰】 鏡農開戰直時大擧突入하야LI朴實의슈으로 幸運의一點을先取하니셈은이로부터더욱白熱化하다 一點을失한崇中挽回에全力하여스나十分間의延長도어드듯지나가고 鏡農凱歌를불으니 崇中血淚를머금다

信聖1 普成0

宣川信聖中學對 普成高普戰은三日午前十一時 二十分부터 審判李榮敏(主) 李正相 洪俊杓(線) 信聖先蹴으로開始하야 結局 1對 0 으로普成憤敗하엿다

【前半】 信聖RW張聖七의파스를 RI金最均바더 슈하니 信聖最初의一點을先取하고 十八分에普成氣勢를올니어 信聖門前에이르러 隅蹴을利하얏스나 凡蹴으로無爲되고 二十四分에또다시好機를마첫스나無得點으로前半을마치다 (1對0)

【後半】 開始以後普成徹頭徹尾信聖門前에肉迫하엿스며 一點을리ー드한 信聖守備에專力할뿐으로 戰勢는普成有利하야四五次의絶好한 機會를失蹴으로노치니 타임업되여遠來의信聖軍勝하엿다

【普成】 柳金玄金韓金車崔朴李朱 / 光在甲泰光成德鍾孝得秉 / 鎬燮鳳鎬坤俊恒濟龍灝 / GRLRCLRRCLL / KFFHHHWIFIW

【信聖】 田方韓金金崔張金韋金崔 / 英時立後炳東聖最嘉明泰 / 晆建果彬龍淳七昀鎬煥健

信聖 前	後	計		普成 前	後	計
1	0	1	得點	0	0	0
4	8	12	門蹴	5	4	9
1	2	3	隅蹴	4	4	8
3	2	5	自由	0	3	3
0	0	0	懲罰	0	0	0

米海軍선쉬과싸와 朴濟建快勝

【上海特信】 十月二十一日上海中央運動場에서열닌 全上海職業拳鬪戰에 出場한同胞選手로써『노란화살』이란異名까지밧고잇는朴濟建君은 米海軍『엔스티워트』君과 對戰하야 判定으로 快勝하엿다 連戰連勝의朴君은 오는十二月初旬에는英海軍『푸라이級』選手權保持者와 雌雄을決하게되엿다한다

專門團準決勝 崇專1 普專0

(戰績은明日夕刊에)

人見枝隊十一名과 馬賊卅九名卽死

護送車에積載한手榴彈炸裂로

吉海警備車爆發詳報

【聯合新京二日發】 이원오장(伊原伍長)이하 인견지대(人見枝隊)의 십일명은 귀순한마적 삼십구명을 다리고 경비차로 수송하든도중 길해선연통산(吉海線煙筒山)부근에서 경비차와 화물렬차가 충돌하자 그틈을 타서 마적단이 도주하라 함으로 격투를하는중에 차중의 란투가 넘어지며 차에 실엇든 박격포(迫擊砲)와 수류탄(手榴彈)이 평장한 소리를 내이며 폭발되야 일행은 전부무참히 즉사하엿다

海軍飛行機 帆檣과衝突

搭乘大尉重傷

【聯合佐世保電話】 일일오전 칠시사십오분 경 무석(武石)대위가 조종하든 수상비행긔가 저공(低空)비행을하야 해상정찰을하고 착륙하려하다가 해군항공대 남방에 잇는 범선돗대와 충돌하야 비행긔는 바다에 떠러지고 무석대위는 생명이 위독하고 긔관수는 경상을 당하얏다

財政交通考慮하야 面廢合繼續斷行

今番은西北道地方에調査完了

郡境界도同時에更正

총독부에서는 지방행정을 일신하며 지방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책을 실현하고저 작년부터 각도의 요구에 의하야 면(面)의 폐합(廢合)을 단행하게 되어 경상북도(慶北)등 남조선지방에는 삼십여면을 폐합하엿섯는데 금년에도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할것 또는 교통상의 편불편을 고려하여 게속적으로 면의 폐합을 할 터인바 발서 서북조선 각도에서도 그 조사가 끗나 불원간 총독부의 인가를 마라 실행하게 되엿다 한다 이와 동시에 내무국(內務局)에서는 군(郡)의 경계(境界)를 측 군의 행정구획(區劃)을 변경할 예정으로 그 조사에 착수하엿다 한다

蘭坡『트리오』演奏會開催

四日夜靑年會舘에서

조선 제금계(提琴界)에 일인자(一人者)들로만 조직된 란파(蘭坡)트리오 연주회는 사일오후 일곱시반부터 시내 종로긔독교청년회관강당에서 열게 되엿다 그 멤버ー로서는 홍란파(洪蘭坡)홍성유(洪盛裕)리영세(李永世)삼씨요 반주로서는『벨서음악평론』의 숙면인 김원복(金元福)녀사가 출연할 터로 당야에 연주될 주명곡(奏鳴曲)등은 귓거을 고요한 밤을 울릴 마침으로 선택한 곡목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비는 대중회비로 삼십전균일이라고한다 (사진은 홍난파씨(上) 홍성유씨(下))

天氣豫報

晴後曇

昨日最高溫度 八、九

同 最低溫度 〇、一七

今日 正午 四、九

一名은無期 一名은十年言渡

리튼卿一行暗殺하라든 李崔兩名判決言渡

【聯合大連二日發】 국제련맹조사단 리튼경 일행을 버려 정거장으로 마중나갓든 일본만주국의 요인을 단번에 폭탄으로 살해코자한 조선사람 류상근(柳相根)과 최흥식(崔興植)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살인예비 폭발물취체규칙위반에 대한 공판의 판결은 이일오전 열시에 개정하고 등긔(藤崎)재판장으로부터 류상근에게 무긔징역 최흥식에게 징역십년을 각각 언도하얏다

스피드窃盜

【咸興】 평남영원군(平南寧遠郡)에 원적을 둔 한원술(韓元述)(三一)은 절도죄로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십일일 출소하엿는데 그 익일인 십삼일부터 다시 절도질을 하기 시작하야 함흥과 서호진(西湖津)방면에서 건흥룩개소에 침입하야 현금 사십여원과 기타물품을 절취하여가지고 유곽과 술집에서 유흥하다가 이십오일 새벽에 함흥서원에게 체포되엿다고한다

運命의作戲! 스러진華燭

二日太平通에서轢死한 尹錫重의숨은哀話

기보=이일 오후 한시에 시내태평통(太平通)에서 화물자동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한 피해자는 본적을 충남연기군연기면(忠南燕岐郡燕岐面以下未詳)에두고 시내 태평통이정목 이백이번지 구보상점(久保商店)에서 술을 배달하든 윤석중(尹錫重)(二二)으로 판명되엿다 가해자는 얼마전에 종로일정목에서 무교정(武橋町)오번지로 이사한 풍국운수조(豐國運輸組)의 운전수 최룡기(崔龍起)(二■)로서 한강가에서 모래를 잔뜩실고 훈련원광사장으로 가든 도중에 태평통 구보상점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피해자와 마조친것이라 한다 피해자는 바로 사흘전에 구보상점에 고용되엿는데 그전에는 시내 봉래정(蓬萊町)이정목 일백칠십일번지 염천식당(鹽川食堂)에서 일하엿다고한다 본적지에는 부모가 다 생존하여서 다달이 번돈을 본집에 보내고 잇섯스며 보름전에는 자긔집에서 혼사를 정해노코 음력시월로 잔체날을 바더노코 나려오라고 편지가와서 그는 그편지를 호주머니에 넛코 댕기면서 음력시월에는 고향으로 도라간다고 가티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조 말하엿다 한다 홈취서 그가 일하고 잇든 염천식당 주인 리승학(李承鶴)씨는 아래와 가치 말한다

윤군이 처음 우리집에 온것은 지난 사월팔일로서 매우 얌전하고 일본소년이엿습니다 최근에 와서 자긔말이 우리집과 가튼 음식점에 잇는것보다도 상당한 상점에 잇는것이 자긔의 장래를 위하야 조켓다고 함으로 바로 사흘전에 구보상점에 소개해서 보냇습니다

◇訂正=작보 운전수의 이름을 리중국(李重國)이라 한것은 그 자동차부 주인을 잘못 보도하엿기 정정함

洪錫厚診察所眼鏡部

淋疾 他의模倣과追從을不許함니다 오래苦生하든原因은藥品과療法을그릇한所以이오 臨하시서 說明을드르시고 急히根治케하시옵 病者를爲하야 特價奉仕합니다 (地方文獻進呈) 京城郵便局北側 チエ京城支店

淋病專門 診察 午前九時로午後八時까지 尿・血液檢査施行(電本二三五三) 京城郵便局北側(レート塔後) チエ京城醫院

皮膚病退治 데ー무水
殺菌作用으로菌虫을全滅殺하고消毒作用으로毒素를分解消滅하야收斂作用으로속히나오
●말은옴●옴●부스럼●진무좀●옴●태독●부스럼●진물은데●가려운증●부름●헌어루러기●여드름●주근깨●腋臭●脣肛門●진무른데●옷올은데●손등터진데●凍傷●살셍 터진等皮膚病一切에쓰면번지지안코압푸지안코內攻안되고구더지지안코냄새업고눈에뜨지안코用法簡便하고속히잘낫는
價廿錢卅錢五十錢一圓二圓全國各藥店에잇소
東京市芝田村町 大阪天王寺石ケ辻町 東京藥院

湖南線裡里日之出町 恩給立替 信券賣買 山口商會 電話三〇五番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京城 朝鮮 (營業案內贈呈)

시에론 레코ー드 專屬歌姬 南宮仙 流行歌 사공의 안악

十一月二日부터大公開 大衆的料金 階上卅錢 階下十錢 三日에는祭日로因하야晝夜二回公開합니다
◇파라마운트社超特作映畵 人情活劇 人生의乞食 全九卷 監督 윌리암에이웰만氏 主演 리차ー드아ー렌氏 웰레스비어리氏 決死的鬪爭을繼續하는乞食한쌍의生涯여! 一代의名畵 不朽의大傑作
◇獨逸우파社映畵 暗黑街活劇 巴里암바쥬 全七卷 監督 니코라스파리코프氏 主演 작크카토란氏 痛快的暗黑街에서이러난大活劇
◇파라마운트社映畵 개구리의王子 全二卷
次週=十一月五日낫부터 날개全十卷 춤추는人生全九卷
麻浦桃花洞 電龍一三三 桃花劇場

十一月四日낫부터 三大活劇映畵上映週間 每日二回 밤七時半始映 料金 大衆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 均一
◇RKO社特作品 大活劇 風雲獻島 全七卷
◇메도도社超特作品 大喜活劇 新婦萬歲 全七卷 큰맛드네케루氏主演 一大센쓰를보시라 요절복통의映畵이다
◇콜럼비아超特作品 大海活劇 救助信號 全七卷 大海洋에서이러난가장아름다운人의戀愛의사흥아痛快 各界이다
鐘路四丁目 電光一七五〇 第一劇場

期待의名篇遂鑑大封切十一月三日브터 日本版 劇場 玉부라운 監督 래이엔라이트氏 助演 진쟈ー아ー부라운氏 妖艶美人群의亂舞中에點綴되는醉의萬華境으로 유나이팃트아지스特作全篇 待望의名篇!萬人渴仰裡에封切되엿다期會를일치마시라! 漫畵大會 全七卷中二卷天然色 코럼비아超特作大雄篇 死線의警笛 主演 도로시세바스챤 助演 로바ー드에되손氏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舘

呼出不應한다고 七十老翁을毆打
被害者는告訴를提起

【固城】경남고성군대가면주재소(大可面駐在所)에근무하는순사강모는동면암전리허정우(岩田里許正佑)라는로인을구타하야피해자는 전긔강순사상대로 지난달이십일에진주지방법원진주지청검사국에고소를제긔하엿다는데 이제그자세한바를 드른바에의하면전긔허정우(許正佑)씨는동리령야십여정보를십유여년전 부러자긔명의로 대부관리(貸付管理)하여오던바 근년에와서 몽민이해림야는 동유림이어 화실한데 허씨개인이 차지한다는 리유로 몽민주재소에다최임순(崔任淳)외 칠인의련서로 석유원을 제출하엿던바 동주재소에서는 권호사회나 라의 여러가지 리유로출두치안하엿다고 지난십칠일에는 권긔량리에종두시행차로 출장하야 강순사가암전(岩田)금산(琴山)(柳興)홍유달내집에서는술집에싸지와서너는너의 동리앞을 독컨하는놈이라하면서 무수히 란타하고밤이듯자 자동차를 불너태워가지고 주재소잇는동리싸지 가서 내려노코 명일주재소로오라고 하면서 강순사는자긔집으로 가버렷는데 허씨는가위혼수상태에 이르러자기 친족의보호로 그냥밤을 새이고오라는명령이라 압흔몸을 업히여서주재소싸지 갓든바 검순사는도로허업고간 사람을질책하고 아모심문도 업시 그냥 돌려보냇다는사실이라하며 허(許)씨는동유 림사긔횡령죄로 고소하에 유치중이라는데 그의아들 허우중(許宇中)씨는왕방한 긔자에대하야다음가티말하얏다

▲許宇中氏談 커의부친이 네번호출에 불응한일은업고 세번호출이 왓섯습니다 처음호출에는 출타하엿기에 제가가며신출두하엿드니본인을오라기에 그뒤에커의 부친이갓습니다 그래아모취조도 업시머리와그락함으로 재래의 관습상 상주의몸이니 엇지못하겟다는 척량을하다가 관청의 명령이라 브득이싸기고 후일또오라는 말만듯고왓습되다 그러고 구타당한그날케가 부친이 혼도하여누엇기에 구호하라고잇는 커를또 강순사가 불문곡직하고양밤을마 에번되다운운

◇姜巡査談 「자세한사정은 서장에게보고하엿습니다만 허씨로말하면 별가조흔을시다 나는 그러케때린일은권연 업습니다 풍문에드르니허씨가 낫중에는 권신에생지왕실버어 부치고잇다가 방이되면 씨서버리는등 별별흉계를한답니다 만일마커서 자긔몸으로거러오지 못할정도이라면 적어도진단이 십사일이상은 될것이외다 공연히나를 너덕네엇처엿네하지만 사실이 증명할것이외다」

大可面長 李漢奎氏談 허정우씨가 동유림을 자긔소유로만들어둔것은 대단히잘못이고경관으로서 인민을 구타하엿다면 잘못이올시다 여하간우리면에서 생긴불상사라 커로서무한히미안한일이외다운운

竹奥里에火災 放火嫌疑濃厚

바람이 명명한이일 오전령시사십오분경 부내 죽전리(竹奥里) 재봉업 리광식(李光植)=假名=의상점에서 발화하여 잠시간에 동상점일동을 전소하고소방대의 활동으로연소는 면하엿는데 손해는이백오십원이나 발화의원인이 의혐의가 농후하다하여 평양서에서는 재산실시검증을 하는동시에 리광식을검거 류치하고엄중취조중이라한다

콜럼비아歌手 演奏會盛況

【群山】지방에숨어잇는명가수를 차거내여 훌륭한소리판을 만들겟다는 뜻으로 콜럼비아축음긔회사에서 지방순회를 한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지난삼십일일 군산 희소관(喜笑館)에서 그예선을하엿는데 십여명의 수험자중에서 군산빈정(濱町)에거주하는 정일경(鄭日敬)(二○)양이 당선되엿다 양은일즉평양녀고시대부터성악에대한천재적 소질이잇서 일반으로부터 매우 칭찬을바더 오든바 금번의 당선은 양의앞날을 개척함에잇서 실로천재일우의 긔회라고일반은 대단유망시하고잇다

江陵法院支廳의 刑事被告判決一束

【江陵】실정삼일중원지청문련에서 강릉지청 컵일등판검사입회하에 문서영목(鈴木)검사의논고가 잇섯든(門田)판사는 다음파가튼 판결언도를 하얏는데 이제그들의죄파의 대략을소개하면 다음파갓다

◇詐欺罪 三陟郡三陟面校里四一五 懲役二年 朴永鳳(三○)

피고는 소화삼년 삼월이일강릉병원에서 사긔횡령죄로징역십개월의 형을밧고 또소화륙년일월삼십일에 역시 사긔죄로 징역이년의 중형을바든 커파자인데 그래도 개준하지안코 금년사월구일 한동리에사는방재규(方在奎)의소(牛)를 팔아먹은일이 판로되여 금번징역이년의 언도를바덧고

◇橫領罪 江陵郡沙川面美老里八三四 懲役六個月 崔鳳錫(三五)

피고는 자긔종중재산이 자긔명의로 되여잇는것을 긔화로 이것을 금년사월에 강릉읍 륙백구십원에타인에게 매도하야 횡령한사실로 징역륙개월의 형을바덧고

◇竊盜罪三件 旌善郡旌善面大興里 懲役六個月 張相玉(二三)

피고는 금년삼월십이일 동리최승이(崔承伊)의집에서장단지를 훔쳐낸것을 위시하야 계속하야 동리가택에 침입하야 물품을 절취하얏슴으로 징역륙개월의언도를 바덧고

寧越 通日郡東萊面九萬里 懲役三年 元周興(二六)

피고는권파 삼범으로 그래도 개준치안코 금년칠월 십이일 동리 김인건(金仁乾)상점에서 현금삼원 이십팔전을 절취하고 또지갑과 모자등을 절취하야 소비한사실로징역삼년에 처하얏스며

忠南論山郡城東面蓬尺里 懲役三年 金京夏(二二)
忠南扶餘郡玉山面內垈里 懲役六個月 罰金二十圓 洪在龍(三○)

피고들은공모하야 금년구월 대화시(大和市)장거리에서 동면하방리(下芳林里) 김광식(金光植)의 옷지고리호주머니에서 현금 사십오원구십전어든지갑을 절취한것을비롯하야수차에 이러한수단으로 절도행위를 범하얏든것이 판로되어 피고들은 징역으로 언도를 바덧고

◇私文書僞造行使其他 寧越郡下海面金音里一六九 懲役六個月 金在韓(二五)

피고는 소화륙년부터 동리 김대정(金大鼎)의 토지 제증명서도업시 커당권을 설정하야 삼십여원을 편취 한것을비롯하야 기타주택철인등 의죄로 징역륙개월의 언도를 바덧다

南原醫院對遺愛廟 敷地問題로紛議
圖面上으로는醫院所有 遺愛廟十三年間耕作地

【南原】요지음남원의원과유애묘사이에 부지 칠십평으로분의가생기여 유애묘측에서는 삼십여명이련서로 도에 진정을하기로하얏다는바 이제 그유애묘란묘는 어떠한묘이며 그토지는 파연 어떠케되엿것인가의 내용조사하야보면 다음과갓다고한다

▲遺愛廟 유애묘는조선종청절에김후희(金候熙)씨가남원부사로부임하야 치적이 현저하든바 자손이업시 남원에서하야 그대로부인한리후석(李俠瀷)씨에게 혼의하야묘를짓서거하매 인민이 그덕을찬송하고둔답을 할급하야 시케를남원유림으로 하여금 모시게한묘라한다

▲廟係員側談 문제의 토지칠십평은본시 성안 장터로서지금부터십삼년권에자혀병원을설치하게되자 유애묘에 출입하는도로와 상환 하게되야출입하는 길을 돌이고 남어지는 지금싸지 계작해온것이나 여러사람의일인만큼 및 바 뚯밧게도 회계파에서도본처분할수속을 하지못하얏든으로보아 병원부지라하야 다시측량을하며 말뚝박는등 말성을일으키는것이다운운

◇病院庶務主任談 유애묘도로와 상환한것은 즉컵자긔가잇슬때의일이아닌만큼상세히는 모르지만 당시학교조합관리자 죽천매태랑(竹田梅太郞)씨의 말을듯건데더 처상한긔어이잇는것가터만한디다 그러나 도보상으로분할에아니되엿슴으로 유애묘측에서 유애묘측에이약이하야 그사정을말하거하면조흘줄압니다운운

愛慾劇一幕
清津에 新婦爭奪戰
한女子를새에두고 세男子가서로싸와

【清津】세남자가한처녀를두고서로장가들기를싸호다가 결국경찰에고소까지되는넌센쓰는 일막이열니여 세인의 웃음화케가되여잇다 부내 동해안(東海岸) 황옥연(黃玉蓮)(假名)(二六)이란 처녀와그이웃사는 리창권(李昌均)(假名)(三三)이란남자가 약혼하고근일결혼식을할여고량가는 다가치준비를하고 잇든바 이것을 들은 김모(金某)와최모(崔某)라는남자는바로결혼식압날밤신부(新婦)될녀자를뎃녀사고서로내가장가들것이라고주장하면서펑장한사흥이잇다가녀자로부터자긔가케일사랑하는남자는리창권임으로 그의커가된다는말에리는데더욱분개하야 남의 커를중간탈취한다는 리유로 김최두남자를거러 경찰서에 고발하여방금취조중이라고한다

情男情婦 逃走中被逮

【新義州】지난삼십일오후칠시이십분 신의주도착 젹행렬차중에서평북이동경찰의손에검거된일본인남녀두명이잇는데 피는향천현곡물검사소 기수(香川縣穀物檢査所技手)신정현팔(新井玄八)(四二)로서 정부에사는삼전(森田)(三二)이란 녀자와 손에손을마조잡고 멀니만주로 도망하던것이라는바 세상의 이목을피하야 멀니만주로가는그들의 리면에는 어떤사실이나 잡재한가하야 목하조회중이라고 한다

松都高普校 財團法人組織
各界人士奮起活動

【開城】송도 고등보통 학교(松都高等普校)는지금으로부터 이십칠년권에 창설된 학교로서 그동안 칠백여명의 졸업생을내엿고현재 약륙백명의 학생을수용하고 잇는개성에서의 유일한 중등사학(私學)과판이바동교에서는이십 칠주년을 마지하는금년부터 그내용을일층 새롭게하며재정적 기초를더욱 공고히하기위하야 재단법인을 조직코저 각방면으로 활동중이든바 지난이일오후 륙시경에 부내천향원(天香園)에서개성각계 유지다수가 송도고보 재단법인조직 발기준비회를개최하고장시간협의한결과이번에기여하야재단법인조직을달성키로하고동교교원회 리사장윤치호(尹致昊)씨에게일임하야발기인십명을권형추천키로하엿다는데동교현재재산은약 삼십오만원가량이되는데교부에서 십만원과 동교동창회에서 일만원과 경성 윤치호(尹致昊)씨의 오만원의 기부내락을 어덧스며 일반유지에게서 약사 오만원의 기부를어더 오륙십만원의 재단법인을조직하려는예산이라는데 일반이사의 다대한 찬조를바란다고한다

黃州官有地 拂下額高騰
一般의非難沸騰

【黃州】황주에는 구관아 긔지(舊官衙基地)와부속지성벽지등(城壁地)의관유지(官有地)가백수십필이 잇서서시내 중요지대지로 사용하는것도 불소하고 농작지로 사용하는것도 잇는데금년봄에 도당국에서 이관유지를연고자에게 매불하게되야 금릉조합등으로하야금 그공가를 검정케하얏는데 대체로 그가격이 빗싸다하야 대부분이 사지아니함으로 군당국에서는 커리에 곤란한 모양이라한다 그중에도 국수장사 하는 라재현(羅在鉉)씨가 빌여잇는긔지는매평 팔원오십컨식으로 사정이되야 가격이 원등이빗싸다고하는데 더욱이 이점터일부에는 수년권에 도당국에서 황주청내 홍수관을 구하기위하야 배수로를설치하게되야 십여평이 배수로로 편입되야잇슴으로 이부분에 대하야서만 가격을케감하야 달나고하나 군당국에서는 지적도에 배수로가 낫타나잇지아니하다는 리유로 가격을낫출수업다고하야 자못비난이놉다고한다

怪火頻發로 警察當局緊張
今後嚴罰方針

【平壤】최근평양부내에는화재가 빈번히일어나 십월중에는 이십륙회의 화재가 발생하여일반은불안상태에잇는데이것은방화광의출현으로인하여 다소증가한관계도 업지안으나 방화광의 방화이외의 화재도발화원인이 수상한것이만혓고 화재 발생장

交通妨害少年 五年役言渡
작란으로길에돌을노하 자동차를전복케한사실

【平壤】작난으로 도로에 돌을싸허노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게한 맹산군봉인면송남리(孟山郡封仁面松南里) 김응도(金應道)(一六)순천군밀전면동포리(順川郡密田面同浦里)윤봉길(尹鳳吉)(一三)동리 한케환(韓濟煥)(一六)등삼명에관한 왕래방해(往來妨害)피고사건은 평양지방법원 소림(小林)재판장의손에서 심리중이든바 작난으로 교통사고가비발하든이 배에엄중커벌할필요가잇다하여 일일오후사시검 응도에징역오년미결구류통산삼십일윤봉길에게징역오년미결구류통산삼십일 한케환에게 징역삼년 미결구류통산 오십일의판결을하엿는데 피고등은 오월십구일 맹산군봉인면송남리 평녕도로(平寧道路)에 삼십팔개의석괴(石塊)를싸하노아 그곳을통과하든 맹산군옥천면 북창리(北倉里)조원조(趙元祚)의집 자동차운권수 양례근(梁禮根)의 자동차를 권복시켯슴에 권관치(田寬治)를즉사케한것이라한다

二八少婦自殺未遂

【原州】지난십월 삼십일일 오후여섯시경에원주읍상동리 송모(宋某)의 처김옥선(金玉先)(一七)(假名)은 이웃집 변소에서 목을매여죽으려다가 그집사람에게 발견되야 요행생명은 구원되엿다는데 그가자살하려든 동긔는 그가금년봄에송씨한테로 시집온이후 시부의 혹독한학대로 말미아마세상을비관하고 그와가치 자살하려든것이라고한다

上水道竣工通水式(西要里淨水場에서)

今日順序

十一月四日(土曜)

第二放送(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時五分 俗謠
一、遊山歌
二、커비가
三、開城難逢歌
四、방아타령
五、南山道
朴山紅 張玉花
◇同○時四○分 뉴ー스
◇同一時五○分 蹴球試合實況 第十四回全鮮蹴球大會專門學校決勝──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事項 이여서 蹴球試合實況 第十四回全鮮蹴球大會青年團決勝──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謠
一、齊唱 집신짝
二、獨唱 죽은줄붕어
三、同 달밤
四、齊唱 애기떡
五、獨唱 서울길
六、同 어미일흔송아지
七、同 장군석
八、齊唱 할아버지우숨
九、輪唱 파랑새
새동무會 會員
피아노伴奏 孫仁基
◇同六時二五分 滿洲語講座 張志暎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講話(十二) 朝鮮古蹟의世界的價値(三) 崔南善
◇同八時○分(東) 피아노獨奏
一、前奏曲과遁走曲…바하作曲
二、幻想即興曲…쇼팡作曲
三、스케르쪼B플랫트…쇼팡作曲
四、론도・카프리치오ー조…멘델스존ー作曲 原智惠子
◇同八時三○分 怪談 骸骨의재채기 金一英
◇同 九時○分 郷俳琴併唱과南道雜歌
一、伽倻琴倂唱
가、六字백이
나、가진六字백이
다、興打鈴
라、개고리打鈴
二、雜歌
가、진양조
나、短歌
다、중머리(사랑가)
伽倻琴 李錦紅 伴奏 尹玉香
◇同 九時三○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波長三三三米)

▲午前七時(東)基礎獨逸語講座(二十一)▲午後○時五分 講談▲同二時 兒童虐待防止の話▲同六時(東)獨唱▲同六時二○分(東)コドモの新聞▲同六時二十五分(東)ことばの講座▲同七時三○分 講演▲同八時(東)ピアノ獨奏 一、前奏曲 二、幻想即興曲 ショパン作曲 三、スケルッオ變ロ短調同 四、ロンドカプリチオーゾ メンデルスゾーン作曲▲同八時三○分(東)怪談▲同八時五○分(東)落語

國境에乖候 躑躅이滿落
平北高山鎭에

【高山鎭】눈발이휘날니는지벌서 이십일이지난 오늘날에국경의오지(國境奧地)에벼아닌진달네꽃이 피여잇다 위원군봉산면(渭原郡鳳山面)가라지령상(嶺上)에는맨질권부터 진달네가만발하야 자못오고가는행객의발을멈추게한다는데 이런것은 국경에잇서서 처음보는것인고라하야일반의화케거리가 되여잇다고 한다

徵收한稅金 盜難當코被調
告發의眞僞未判

【南市】지난달이십구일에룡천군외남면(龍川郡外南面)에근무하는 면직원 최일대(崔一大)씨가 사무를맛치고 집으로도라가는도중 몸이여연수상한 사람이 낫타나서 몸을수사하야세금을바더간직하엿든 현금 칠십원을 강탈도주함으로 어쩔수업시 돈을 빼앗긴뒤에 그사실경과를소관주재소에 고발하엿든바 일방범인을 수사중 혹시위고발이나아닌가하야 도리어당한 면직원을 수사하고 취조중이라한다

扶安에서 教育展覽開催

【扶安】전북부안군교육회에서는 오는십사、오양일간 부안공보교(扶安公普校)안에 전군 생도급교원의련합전람회를개최 한다고한다

奉化地方에 色衣斷髮宣傳

【奉化】경북봉화군당국과내청면사무소와그외 관공서직원일동은 지난달삼십일 장날을긔회로 오는십일월일부터는 일제히 색옷을닙고 단발을하자는 삐라와포스타를 만드러가지고 행렬을지어 색의단발을선전하엿다한다

身病悲觀自殺

【平澤】이일오전구시경평남선보통교부근에서일본인소년이질주하는열차에뛰여들어자살햇다는데동서에서는현장에출장하여검시한결과부내상정리(上町)주전신남(酒田信男)(一七)으로판명되엿고 신병을 비관하여염세자살을한 모양이라한다

有情 (32)

春園 作
熊超 畫

나는「사랑」이란 말에 어르려서 힘잇게 동그라고는 붓대를 내어던지고 황홀한 망상을 헤어버리라고 문을 열고 루루로 나갓소。한참이나 인와업는 루루로 그냥다가야빗방울이 내 쓰거운 얼골에 치는것을 깨닷앗소。동풍인지 북풍인지 모르나 바람이 부오。엽집 모양으로 흑흑고는 그처고、흑흑고는 그처고、그러할째마다 빗발이가로 뿌리오。

긴자의 네온사인 빗치 따우스튼에 나오는 요귀의 불빗모양으로 푸르고우렬하게 허공을 비최오。동경의 불빗바다는 내 마음을 더욱 울쳑하게 하엿소。

이때에 뒤에서、

「모시모시(여보셋요)」

하는 소리가 들렷소。그것은 한 저고리를 입은녀의보이엇소。

「웨?」

하고 나는 고개만 돌렷소。

「손님이 오셧습니다。」

하고 나는 보이에게로 한걸음 갓가이、갓소。나를 차즐 손님이 어듸 잇나 하고 나는 놀란것이오。

「따님께서 오셧습니다 방으로 모셧습니다」

하고 보이는 들어가버리고말앗소。

「따님?」

하고 나는 더욱 놀랏소。순임이가 서울서 나를 따라왓나? 그것은 안될 말이오。순임이가 내뒤를 따라 떠낫더라도 아모리 빨리와도 내일이 아니면 못 왓슬것이오。그러면 누군가。정임인가。정임이가 병원에서 뛰어난것인가。

나는 두군거리는 가슴을억지로 진정하면서 내 방문을 열엇소。

그것은 정임이엇소。정임은 내가 쓰다가 둔편지를 보고잇다가 벌덕 일어나 내게달려들어안겨버렷소。나는 얼빠진드시 정임이가 하는대로내버려두엇소。그 편지는 부치라고 쓴것도 아닌데 그 편지를 정임이가 본것이 한되엇다고 생각하엿소。

형! 나를 책망하시오。십히 붓그러운 말이지마는 나는 정임을 힘껏 껴안어주고 십헛소。나는몃번이나 정임의 등을 굽어보면서 내 팔에 힘을 너흐라고 하엿소。정임은 그십히 귀여웟소。정임이가 그처럼 나를 사모하는것이 자히 깃벗소。나는 감정이 아커서 눈이 안 보이고 정신이몽롱하여짐을 깨닷앗소。나는 아프고 쓰르든한 깃붐을 깨닷앗소。영어로 엑스타시라든지、한문으로 무아(無我)의 경이란 이런것이 아닌가 하엿소。나는 사실평생에 이러한 경험을 처음 한것이오。

형! 형이 아시다십히 나는 내 안해이외에 젊은 녀성에게 이러케 안겨본 일이 업소。무론안아본일도 업소。

그러나 형! 나는 나를 놀렷소。내 라오르는 애욕을 차디찬 의지의 입김으로 불어서 끄라고 애를 썻소。

「글쎄 웬 일이냐。알는것이 이 밤중에 비를 맛고 웨나온다말이냐。철업는것 가트니」

하고 나는 아버지의 위엄으로 정임의 두 억개를 붓들어 안쳣소그리고 나도 테이블을 하나 새여두고 마조 떠에 안젓소。

정임은 붓그러운드시 두손으로 낫츨 가리우고 케무릎에 업드려 울기를 시작하엿소。

정임은 누런 갈색의외투를 입엇소。무엇을라고 왓는지 구두에는 왜 만히흙이뭇고 모자에도 빗방울 얼편지가 보이오。

「네가 이러다가 다시 병이 더치면 엇지한단말이냐。아이가 웨 그러케 철이 업니?」

하고 나는 더욱 랭정한 어조로 책망하고 데스크 우에 노힌 내 편지 초를 집어 박쉬쳐버렷소。조희 찟는 소리에 정임은 잠간 고개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 손을 보고 다음에는내 얼골을 보앗소。그러나 나는 모른척하고도로 교의에 물아와 안져서 가만히 눈을 감앗소。그리고 도모지 흥분되지아니한 모양을 보이엇소。형! 엇더케나 힘드는 일이오?

참으면 참을사록 내 입술이 마주 부듸치고、얼골의 근육이 씰룩거리고 손은 불으르 쥐어지오。

投網 조흔그물 낙시제구
吉備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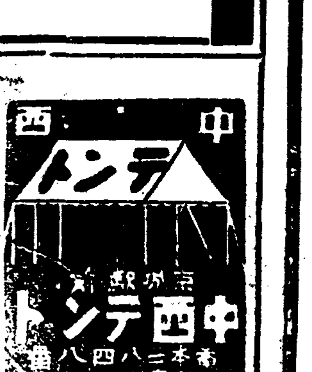
京城府明治町 株式會社 京城德力 金 高價買入 電話本局一五七三番 平壤出張所

단센스王座 (一五八五) 곰보打鈴 엿줘라打鈴 申不出 申銀鳳 오케-레코-드

新案特許 型錄進呈 双輪打機 銃살 튀난機械 술사機械 당機械 비機械 平壤府西城里一○ 黃利謙工場

恩給 長期短期株有利 立替照會細密 京城授恩洞一六○ 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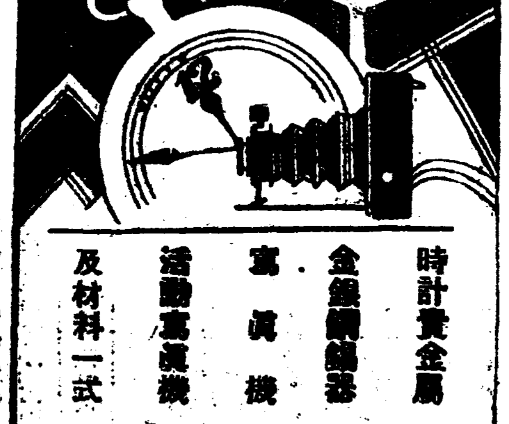
公認 서울아이一式



中西テント

登錄商標 京城 大陸 登錄商標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電話本局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三八一番 總販賣部 京城鍾路(裁判所前) 電話光化門長七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七一二三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 電話本局七五四番 振替口座京城三七七五番

京畿道指定 叭 穀用 肥料用 株式會社 第一社 水原邑南門外



時計貴金屬 金銀細工 寫真機 活動寫眞機 及材料一式 京城本町一丁目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怨聲만흔 春陽金組의 土地競賣
秋收期압두고 抵當土地競賣
落札者立稻까지占領

【奉化】 경북봉화에잇는춘양금융조합(春陽金融組合)에서연체부금액의 대치산으로 지난녀름부터 차압토지경매를 속속 시행하게되자 일반농가에서는 이삼개월만참아주면 일년간 피땀흘린 결정의곡물이라도 추수하여갑고 여마동안이라도 살어갈터인데 그사이를참지못하고 이러한번려을주어 조합원의 생명을보장하여줄조합은 도리허 사경에일어 넛는다고 비란이비등하며 날로원성이추천 하다하든바 어니와 그뒤를니어소유토지경매를당한자에게는 또가혹한처리가나리엇다한다 토지사자ㅣ경계토지사자하며여출입을구로고함치며경매장에밀려들어온 본년피땀흘여지은곡수를 이것이내것이라고 새를벗희며 그대로소작료 낫 주지안코 권부압수하여가며 심지어립도그대로 추수하여가는 일이속속연출되는데 이에하나인 안동읍내동최문백(安東邑內部洞崔文伯)은춘양면의양리(春陽面宣陽里)권조국(權重國)씨토지로 논 천백팔십칠평 의생산곡량도열섬(五升斗十五斗入一石의十石)의것이 지난구월십일일춘양금융조합의경매신입에의하야 경매되자 권리를 최문백은 요지음 립도그대로추수하여간사실도 봉화경찰에 류처취조중이라는데 당국에서는 이와가튼 부정한자에게는 엄혹한처단을나릴방침이라한다

乘組員十二名의 生死尙未判明
縣漁丸遭難後報

【鏡興】 지난달이십삼일영흥군고령면비동(永興郡古寧面批洞)을떠나 원산을향하야항해하든 원산해안통(元山海岸通)의 수저망후원회(水底網後援會)의 권속인 현어환(縣漁丸)이 호도부근(虎島附近)바다에서 침몰된지 삼일만에 그배의 승조인제주도출생의 문은숙(文恩淑)과호도출생의 리원각(李元珏)씨가 구사일생의 기로에서 그부근 섬에 착륙 양슬옌이고 그외 승조원 십이명의 행방이 불명한 그대로소식이묘연하다 함은긔보한바 어니와 이급보를접한관계 각당국에서는 경비선과 발동선을 출동시켜 영흥만(永興灣)일대를 샅샅이수색하얏스나 지난삼십일까지 아모소득이 업시 도라왓다는데 수중고혼이된 그대로 시체조차찾지못하야 울고잇는 유족들의 애통하는광경은실로목불인견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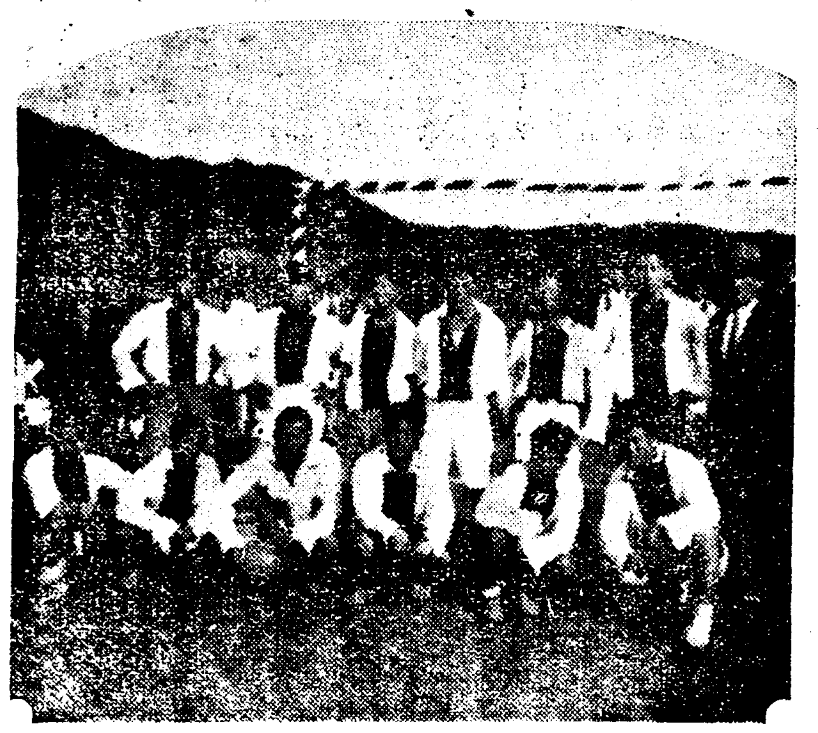
咸南의人口現狀
元山依然首位
五千人以上都市十個處

【元山】 함남도에 잇서서 금년도조사에의하면 백오십삼만 구천 일백구십오인이라는데 이를구별하면 조선인이 일백사십구만 구천오백구십팔인이오일본인이 삼만오천구백 이십팔인이오 중국인이삼천오백 팔십인이오 기타외국인이 구십팔인인바 다시 오천인이상의 포용한곳을조사하면

元山	四二、一四〇
咸興	四〇、二七六
興南	二五、四六〇
北青	一一、九六一
惠山	六、七四〇
永興	六、六四五
新浦	六、四〇六
遮湖	六、〇二七
新昌	六、〇〇〇
端川	五、四二二

이며 일본인은 구천륙백팔인의홍남(興南)이수위오 원산과함흥이 순차이라한다

西朝鮮蹴球大會



【安州】 동복청년회(東伏靑年會)주최본보안주지국후원의서조선축구대회(西朝鮮蹴球大會)는예정과가티 삼십일오전열시부터 동복운동장에서 대회회장김기백(金岐伯)씨의 사회로열니엇는데 김요한(金約翰)씨의 주심으로 이틀동안의 대회는공전의성황리에 맛치엇다 최후의결승은 안주축구구락부(安州蹴球俱樂部)와순천군(順川軍)에결승전이엇는데 광휘잇는월계관은 안주축구구락부에 도라갓다(사진은 우승한 안주축구단)

原州面에서 事務五審會開催

【原州】 강원도원주군에서는 항상 그면의발전을 날도연구중이든바 금번터욱이 각면일반사무와 제반시설상황을 서로서로연구할목적으로 리원들 서로밧구어 심열케하기로 지난십일월삼십일일부터 십일간예정으로 면사무호심회를개최하엿다한다

黑橋三台學館 夜學을設置

【黑橋】 황해도 황주군 흑교면 정수리(黃海道黃州郡黑橋面淨水里) 삼태학원(三台學院)에서는 문맹에 헤매이는불상한남녀소년들을위하야 학부를 설비중인데불원간개강하게되리라한다

장날마다 白衣人에게 붉은물뿌려

【興上】 함남정평일대각면당국에서는 일찍부터 소비절약을목표로색복 장려를려행 하여오든바 작금에와서는 그성과의부진에유감이엿든지 장날을 리용하야 강제수단을감행한다고 권하든바 지난일일정평장날을 긔회하야 과할면당국인 부내면직원이 총동원하야 이부또는경창의농원들어더 흰옷입은 장군에게 붉은물들칠하는등 강제처치에는비란이자자하다한다

四歲女兒失踪

【扶安】 부안군부령면모산리구역불이이민촌(扶安郡扶寧面茅山里區不二移民村)에사는리춘삼(李春三)의안해 지대원(池大媛)(三六)은지난십월삼십일일 오전열시경 평교(平橋)들에서 나락을 훑틀떼그의네살먹은 딸순애(順女)가 딸어와잇슴으로 아버지 의게로가라고 또차버리엇드니 그길로순애은 제의아버지에게로 가지안코 영영가곳을알수업서 방금 각처로 애통을하며 찾는다는데 그어린애은 붉은인조 저고리에 검은광목중의를입엇다고한다

記念碑除幕式 白學濂先生

【南市】 십월삼십일일정오에 룡천군외하면 순천동청룡재후원(龍川郡外下面順川洞靑龍齋後園)에서춘포백학렴선생사은기념비제막식(春圃白學濂先生師恩記念碑除幕式)을 거행하엿는데정각에문인리윤혁씨의집례로조선고악의주악과축문낭독이 잇슨후 식을맛친후성대한잔치가 잇섯다 이제선생의사은을기념키위하야 비를세우게까지된경로를잠간소개하면 거금십여년전에 고리진수(李鎭秀) 리수은(李洙殷) 리윤혁(李潤赫) 백이원(白仁源)제씨의발긔로춘포백성생의문학계를조직하엿던바 지금은그문학계 금액이 오륙천원에달하엿다 그리하야 작년에문학계원들의의향이 사은과념비를세움이 조타고생각하여 사백여원을들여 비를세우게되엿것이라한다

假巡查가 窃盜를逮捕

【安溪】 경북의성군신평면안사동에는 수일전에 어떠한괴청년한명이 돌연하여 자긔는동군경찰서에근무하는권모(金某)라고 자칭하며 부근구장수명을 소집하여 수일간밤에 갑도록각지를순회하다가 동동황사진(黃)

鐵原郡에서 畜産品評開催

【鐵原】 철원군농회주최로제일회축산품평회를 지난달 삼십일일과 금월일일양일동안 철원읍내우시장에서 개최하엿스며 일일오후 네시부터는 철원군청내에서포상수여식을거행하엿는데 금번출품두수와 점수며입선두수(入選頭數)로는 종모우(種牡牛)로는 십삼두중 비육우(肥育牛)이십일두중 입선되엿다는데 입선수효가사상이외의호성적이라하야니할수업다한다

(四)의천배(崔)씨의방에 이르자 년예로 걸도의함을가지고 평관이조치못하든 권고배여는 예마출입관에잇든벼를 팔취하여다가 처처하려든것이 발각되여 본서에인치한다는 구실하에 권고동대로서 약상리상거나되는 황소동이라는 삼촌지에 이르자 어떠한 리유이엿든지에 도로활동한후 유유히 잡처하엿다는데 소관서에서는 권고배여를 엄중추조를진행하는일방 방금피정년의행방을엄탐중이라고한다

『솟、가마』專門窃盜 元山署에逮捕
被害二百餘個

【元山】 카마(釜)만골라 가지고도적하야조각조각내여 고물상에팔기를수백여개나한 가마권문의도적이 원산시내에 횡행타가 필경은일에와서 원산서에 체포되엿는데 이자는 시내상리일동이바세준(朴世俊)의장남 『귀찬』(그)(全部假名)이라는바 가마를 일허버린사람들은 원산서에신입하라고한다

慶山에窃盜頻頻

【慶山】 본월 초순경에 경부선 경산역전포목상 리종성상점(京釜線慶山驛前布木商李鍾城商店)에 절도가침입하야 시가 백여원의 물건을 절취하야가사실이 잇섯스나 아직그범인을잡지못한이 십오일밤에 또절도가침입하야 피륙 합오십여원가치의물건을 절취하여간것을 동일오전에야 발견하엿다는데 바로 금반같은도가 아닌가하는 일반의 추측이 잇다는데 다못 당기경찰의활동을 자못주목중이라한다

新義州에 初雪

【新義州】 십일월일일오후한시 삼십분경부터 약한시간동안국경일대(國境一帶)에는첫눈이 내리엿는데 신의주 측후소(新義州測候所) 발표에의하면 이십륙일이나 일으다한다

新院地方에 白菜蕃根大凶
고초와마늘시까지도흉작으로 『김장』恐慌現出

【新院】 황해도신원(黃海道新院)지방일대에는 김장긔에 백채와 무가대흉작이고 그뿐아니라 역시김장에는 업서서아니될 고초와 마늘등속까지도흉작이여서 그갑이 고등할뿐아니라 살라야살것이업서서김장긔에일대공황이 이러낫다한다

全東烈氏美擧

【井邑】 전북정읍군칠보면 백암리 권동렬(井邑郡七寶面白岩里全東烈)씨는그부친권영좌(全永佐)씨의회갑(回甲)일이래 팔일인바 회갑연비(回甲宴費)를절약하야 일금백원을동면 무성공보교(同面武城公普校)의하금연창비로긔부하엿다는바 면민측 에서는 씨의성의를 청송한다고한다

開城附近一帶에 紅蔘密造頻發
共謀者三人又逮捕

【開城】 지난삼십일일밤에게성서원과 밋권매국원(專賣局員)이계풍군청교면덕암리 일이오공번지 진세권(陳世權)의 집을포위하고 홍삼밀조한단삼인을검거하는동시에밀조품압수하엿다는데그내용을들으면부내대화정(大和町)일백사십륙번지최유원(崔瑜元)(三六)동고려정(高麗町)이백이번지 김자인(金滋寅)(묘) 북본정(北本町)오백사십일번지 최재한(崔在漢)(三七)의삼인은공모하야 작년부터 조를 공모하야 가지고 황해도 연백군해월면 소재삼포로부터 수삼이백사십근을매수하야 권리진세권의집으로 운반하야 헤다가 홍삼을밀조한후 그를포장(包裝)하든중 그가리처포된것이라는데 범인은 게성서에서 엄중취조중이라한다

運轉手合格者

【平壤】 지난달평안남도에서시행한 자동차운전수 시험에수험자가 일백륙십사명중 삼십이명이 합격되엿는데 씨명은다음과갓다한다

金鍾浩 李昌祚 盧相禎 鄭熙 李炳潤 金用錫 金寅培 雙炳煥 原田 金贊奎 朴恩植 金容赫 李彬 白亨錫 正三 李 李峯珍 洪鎭 濟 張永杰 李永強 黃迪 安用 石 白南煥 李啓金 又吉 李鍾九

屍體는解剖 犯行端緒未得
搜查方針도未定
兼二浦老婆慘殺後報

【兼二浦】 겸이포여청유곽삼화상임본이과부 삼、사매(兼二浦榮町遊廓雜貨商森사메)(七七)가강도에게 참살된것을 지난삼십일일 오전십시 발견되엿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 사건을 중대시한 도경찰부에는 오보안과장(吳保安課長)과 암교심문계주임(岩橋訊問係主任)이직접출장하야 용의자이인을 검거하야엄밀한 취조를 계속하는일방 십일월일일에는 평양의학 전문교수화긔(平壤醫專敎授和氣)씨의집도하에 오후한시부터 범행현장에서 시체를 해부하엿스나아모런단서도 엇지못한 모양으로방금겸이포서에류치 취조중인 용의자 두명도 이렇다할혐의가박약하야 수색대도 아칩을세우지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형편으로사건은 더욱 미궁으로드러간다고한다

瑞山 婦人裁縫講習會

△時日 十一月九日부터六日間 自午前十時半至午後三時半
△場所 瑞山邑內監理敎會禮拜堂
△會費 參十錢(費用充當)
△講師 싱거ㅣ裁縫機械部 專任講師 曹谷子女史
◇主催 朝鮮基督敎瑞山育敎婦人會
◇後援 싱거ㅣ미싱會社瑞山分店 東亞、每申、朝鮮日報 瑞山支局

本社後援

第五回 全朝鮮中等學校씨름大會
第四回 全朝鮮柔道劍道大會

規定

◇씨름大會◇
◇大會期日 十一月十一日午後一時
◇場所 天道敎紀念館
◇參加規定 ▲每校五人候補二人 ▲期日十一月八日까지 ▲場所鍾路二丁目體育會 ▲參加金每校三圓

主催 朝鮮씨름協會 朝鮮體育會

◇武道大會◇
◇大會期日 十一月十二日午後零時
◇場所 天道敎紀念館
◇參加規定 ▲參加人員은每校武道部及道場에서六人以內로함 ▲期日十一月八日까지 ▲場所朝鮮體育會 ▲參加金每人二十錢

主催 朝鮮體育會

本報支局讀者 特別優待診療

【康津】 본보강진지국에서는 강진읍내강진의원김종섭(康津醫院金鍾燮)홍제의원홍재유(洪濟醫院洪載裕) 양씨와 교섭하야 애독자무료진찰권을십일월일일부터배급하얏다한다
一、診療無料 藥價及手數料一割
二、有効有間은發行日로부터一個月間
三、入院時는特別割引
四、有効期間中에는幾回라도通用함

【奉化】 본보봉화지국에서는 읍내영창의원장김창환(永昌醫院長金昌煥)씨와춘양시내춘양당의원장 구관회(春陽堂醫院長具觀會)씨와 교섭하야 십일월일일부터 관내독자우대 진료권을 발행하엿다한다
一、診察無料 藥價及手術料一割
二、一般處置料半額
三、入院時는特別割引함
四、有効期間에는幾回라도通用

【郭山】 본보곽산지국에서는 곽산시내 정산의원의사 강학룡(定山醫院醫師姜學龍)씨와교섭하야십일월일일부터관내독자에게우대진료권을배부하얏다
一、診察無料 藥價及手術料一割
一般處置料半額
二、有効期間은發行日부터一個月間
三、入院時는特別割引
四、有効期間에는幾回라도通用

【進永】 본보 진영지국에서는 시내남산의원(南山醫院) 김봉훈(金鳳勳)씨와 교섭하야 십일월일일부터 본보독자에게 진료권(診療券)을배부하얏다한다
一、診察無料 藥價及手術料一割
一般處置料半額
二、有効期間은發行日부터一個月間
三、入院時는特別割引
四、有効期間에는幾回라도通用

【興南】 본보 흥남지국에서는시내천기리(天機里)에잇는제혜의원분원(濟惠醫院分院)의사 리준철(李俊喆) 구룡리(九龍里)에잇는안영의원의사안영철(安永醫院醫師安永徹)양씨와 교섭하야 조선일보 애독자진료권을 다음과가치 발행하엿다 한나
一、診察無料 藥價手術費及一般處置料半額
二、入院時는特別割引
三、有効期間은一個月(發行月부터)
四、有効期間中은幾回라도通用

【鎭南浦】 본보진남포지국에서는 부내대동의원장리겸호(大同醫院長李謙浩)씨에게 촉탁하여 애독자진료권을 다음과가티배부하엿다한다
一、診察無料藥價手術費及一般處置料半額
二、入院時는特別割引
三、有効期間一個月(但發行日부터)
四、有効期間中은幾回라도通用

【羅津】 본보라진지국에서는시내 태안의원주용진(泰安醫院) 중앙치과의원도룡기(中央齒科醫院盧龍基)양씨와교섭하야 애독자진료권을 다음과가치배부하엿다한나
一、診察無料 藥價及手術一般處置料半額
二、入院時는特別割引함
三、有効期間은發行日부터一個月間
四、有効期間中에는幾回라도通用함

雲峴宮의봄 十五의四

琴童 作 芝山 畵

금천 최장의가 병긔를 맛나게 되것은 저녁께가 거진되여서엇다 돈냥이나 잇는듯한 최장의는 병긔의 아들을 위하여 연ㅅ출갑스로 이백냥을내고 청지기에게 또한 심부럼ㅅ갑스로 쉰냥을 내고 그쉰냥의 덕으로 여러번 대감을 재촉하엿지만 대감은 좀체 맛나주지 안헛다 남산동 모를 내여또는 뒤에는 내실로 들어가서 한시각이나 잇다가 다시 정청으로 나와서도 좀체 최장의를 맛나주지 안헛다 점심을 먹는다 점심뒤에는 잠시 낫잠을 잔다 낫잠에서 깨서는 어제읽든 소설의 계속을 한참 읽는다 하여 저녁때가 거이 되여서야 최장의를 불러드린 것이엇다 최장의는 나히는 거진 병긔와 년갑이엇다 의외에서인 만한 눈으로 최를 병긔는 바라보앗다

「자네가 금천사는 최장의ㅣ가?」

「네 그럿슴니다」

「거긔 안게」

병긔는 담뱃대로 최의 안즐 자리를 가리치고 적하엿다

「선향이 어듸긴가?」

「△△올시다」

「금천읍내 사는가?」

「네」

「성주는 누구드라?」

최장의는 성주의 이름을말하엿다

「응 청사는 어떤고?」

「선청이올시다」

「그래서 나를 차즌 연고는 무엇인고?」

「네 다름이 아니오라 소인은 남성사의 장의이옵든데 이번 남성묘에 충문공 김조순(忠文公金祖淳)어른의 위패를 모시고 선액(宣額)을 하고저 대감에 그 소장을 ─좀……」

병긔는 눈을 천천히 구을려서 선비를 바라보앗다 그 소장은 하려면 제조를 하여 대궐로 들어 가야할것이다 그것을 자긔게드리는 그 뜻을 알다 얼굴의표정으로서 보고저 함이엇다 충문공 김조순은 병긔의 양할아버니다 이러한 인ㅅ출도 자긔게 부탁할인가 다른데로 가저 가면 당연히 거대한 황금을 바치고야 성공할 일을 사손(嗣孫)에게 부탁하여 공짜로 하여 보라는 심청으로 자긔게가지고온것인가 혹은 자긔는 이 나라의 세도(勢道)인지라 자긔라야 그 일이 성공될줄 알고 다른곳을 거쳐노코 자긔를 차자온 것인가 좀더 명료히 말하자면 최장의는 돈 안드리고 성공하기 위하여 자긔를 차즌 것인가 혹은 가튼 돈을 올니는 이상에는 자긔를 찾는것이 제일 힘잇슬줄 알고 자긔를 차즌 것인가 금천에 남성사라는 서원이 잇다는 것은 병긔 일측 들은 일이 업다。 그런측 그남성사라는것은 그다지 유명치 못한 서원임에는 틀림이 업다。 그런 미약한 서원에 충문공(순조비 김씨의 아버지요 지금 권문김씨의 조상인)을모시고 충문공의 위패의 힘으로서 세력을 펴보라는 계획 이것도 두말할것도 업다。 공자를 모시기보다도 명나라 어떤 천자를 모시기보다도, 권문김씨의 조상을 모시는편이 더욱세쓰기에 첩경인것은 거듭말할필요도 업다。 그러나 그충문공의 위패를 모심에 잇서서, 다른곳을 찾지 안코 그의 사손되는 병긔자긔를 차즌까닭을병긔는 알아보려고 최의얼굴을 한참 드려다 보앗다 한참 드려다보다가 병긔는 투기어 버렷다─

『그러면 자네는 길을 잘못 들엇네 나는 어려다고 대답을 할수가 업네』

병긔는 담배 설합에서 삼등엽초(三登葉草)를 꺼내여 손으로 말으면서 고요히 이러케 대답햇다

그러나 최장의의 얼굴에는 락심의 표정이 나타나지 아니헛다 이만한 인사상의 거절은 미리부터 각오하고 와슨 모양이엇다

최장의는 도포ㅅ자락을 좀더 헤치며 조금 나 안젓

統營 竹細工講習會開催

▲時日 十一月六日부터一個月間
▲場所 統營邑內
▲申請所 本報統營支局
▲申請期 十一月五日까지
▲材料 主催側에서提供
▲會費 每人參圓(講師는來開)
◇主催 朝鮮日報社統營支局

浦項 全朝鮮弓術大會

△日時 十一月八日부터三日間(雨天順延)
△場所 浦項南濱町(射場)
△申込金 壹圓五十錢也
△申込所 浦項旭町金泉旅館
◇主催 東湖亭、浦項旅館組合
◇後援 朝鮮日報社浦項支局

浦項 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

△時日 十一月八、九兩日間(雨天順延)
△場所 浦項南濱町그라운드
◇主催 浦項輪業組合 迎日酒造組合
◇後援 朝鮮日報社浦項支局

鎭興 支局設置記念將棋大會

△日時 十一月五日(陰九月十八日)
△場所 本支局內에서
△申請場所 十一月四日까지
△賞品 實用品本位로! 各等別은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鎭興支局

讀者利用欄

一、本欄은 一般讀者間의便益을圖하기爲하야 公開하되求職、求人、求婚、家屋其他物品의賣買貸借、物品書籍業務等의交換、商店讓渡、敎授、紹介其他의各種用務를紙上으로發表케되엇사오니 左記規定下에만히利用하시압
一、揭載要領事項은「讀者利用欄」係로보내되 記入하야
(가) 葉書一枚에는一件에限하야記載할일
(나) 每件의要領은五十字以內로함(超過時는沒書함)
(다) 匿名은不許하며 前項의五十字以內에含하도록明記함
(라) 申請人은반드시署名捺印하되
二、紙上揭載는申請到着順으로하고面談은絶對謝絶함
三、紙上에揭載된事項에對한照會는揭載主에게直接할일(本社는照會에는一切不應함)
四、內容이不適當하다고認할時는本社는修正又는沒書함을得함

技士 採用、세멘트製造業의一切智識이豐富하신技士要求 府內峴底洞四六ノ七 高鳳基

食母 四十歲도五十歲可量된 부ㅣ一人을採用하오니希望者는 府內西小門町四七(裁判所뒤붉은대문집) 張氏

配達 牛乳配達外交經驗者로保證人을要함 府外新設里四〇七 朝鮮保康會

求人 十九、六歲된삼부를시켜 女兒一人을求합니다 府內郡染洞一〇〇 吳氏

求婚 本人은二十歲된總角이온대 殷實한분과結婚하기를願합니다 忠南泰安市 尹泰岩

書籍 內外新刊雜誌月定讀者를歡迎하니本書店에申込하시옵 府內仁義洞 文堂書店

求職 私立普通學校敎員으로奉職하기를願합니다 黃海道金川郡金川面龍仁里 睦榮

求職 普通學校에囑託敎員되기를希望합니다 東萊邑校洞三七〇 秋甲得

求職 新聞社나雜誌社에就職을求합니다 府內中學洞七六 羅永泰

貰家 電燈並하야月貰五圓五十錢인데獨身者로學生이나店員으로家貰는等分하실분을求함 府內永樂町一三ノ七 李成烈

求職 工業에多年經驗者 工場設計、製圖、配藥技術一切明確 求職希望 府內峴底洞四六ノ七 金德麟

求職 京城府內에잇는百貨店이나雜貨商店의店員되기를願함 保證人有 平北義州郡威化面下端洞八三五 朴柄元

求職 中學二年程度인데布木商店員을希望 保證人有 府內雲泥洞 金鶴洙

雜誌 科學畫報及科學犯罪科學 照會 府內

鍼灸 研究生三人募集 二十五歲以上 學科書代五十錢 鍼灸院

求職 給仕나店員希望함니다 京城府東本町五八 朴王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一二八一
十一月一日부터特別興行 料金 大人六十錢 小人五十錢 階下大人四十錢 小人三十錢
秋期映畫 一九三三年度映畫藝術의最高의凱歌! 朝鮮日報社推薦映畫! 파라마운트社超特選藝術篇全發表
日本版 戰場아잘잇거라 全十卷
아네스트·헤밍구原作 후랑크·보ㅣ시기監督 主演 헤렌·헤이스·케리주ㅣ바 助演 아돌프·만쥬
歐洲大戰을배경삼은 피여잇는사랑 ... 그곳에서는 悲劇
四百十九號室의女子 全九卷 日本版
젠·그로리아·스완손·삼·우드 主演 아데키ㅣ산다ㅣ監督

浪花館 本町 明治町一 電本二六〇
十一月一日特別公開 一九三三年の幕を飾る最高映畫藝術篇! パラマウント映畫社が誇りに捧ぐる本年度最大の傑作篇…
戰場よさらば 全十卷 フランク・ボザーギ氏監督 主演 ヘレン・ヘイズ ゲイリー・クーパー 助演 アドルフ・マンジュウ
歐洲大戰の焔野の丘にゆくりなくも咲きそめた戀の花
ブラウン野球虎の巻 ジョー・イー・ブラウン主演 喜劇王ブラウン君が野球の本場米國の…
『父歸らず』 八卷 ナディヤ・シビルスカヤ嬢 共演
M 十一卷 ペーテル・ロルレ エレン・ウィドマン 主演 獨逸ネロ映畫社超特作 フリッツ・ラング氏監督作品
秋季特別大興行 實力の勝利は映寫綠音の鮮明さ

中央館 永樂町一 電本三〇四一
新興キネマ超特作現代劇 新女性線 全十卷 雜誌「日の出」所載 原作 中村武羅夫 監督 田中重雄
入社第一回 中野かほる 由利健次 水原…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資本金參千萬圓
頭取 有賀光豊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七十八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合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